

새로 나온 책

### 경영학의 아버지, 그의 컨설팅 비결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컨설팅 전략을 담은 경영 철학서, 드러커 컨설팅의 핵심은 자신의 무지를 활용해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1981년 드러커는 GE CEO 회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 번째 질문은 “GE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이 사업에 뛰어 들 것인가?”였다. 대답이 “아니오”라면 드러커는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인가?”라고 물었다. 웰치는 드러커의 질문을 바탕으로 GE가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지 않는 사업은 매각하거나 문제를 해결했다.



피터 드러커 경영 컨설팅

윌리엄 코헨 지음 / 안세민 옮김 / 한국경제신문

드러커는 수치화된 보고서를 가지고 멋진 발표를 하는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는 의뢰인에게 정형화된 해결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드러커는 문제와 상관없는 주제를 다루며 장시간의 대화로 의뢰인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숫자와 산술적인 방법이 아닌 직감에 의해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드러커는 자신의 무지를 컨설팅에 적극 활용했다. 여기서 무지란 기존의 경험, 지식, 전문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의미가 아니다.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드러커는 의뢰인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저자는 드러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에 있다’고 말한다. 평범한 관찰이 갖는 힘에 주목해보자. 408쪽, 2만원. /김현정 기자

### 그래, 지금까지 잘 왔다

세릴 스트레이드 지음/우진하 옮김/부키



세계적 베스트셀러 ‘와일드’의 작가, 세릴 스트레이드가 전하는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 세릴은 9개의 산맥, 사막과 황무지, 인디언 부족의 땅으로 이뤄진 4285km의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을 완주 한 뒤 그 경험을 담은 에세이 ‘와일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그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문장을 따라 걸었다고 고백한다. 인생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기댈 곳이 없을 때 ‘문장’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보는 건 어떨까. 244쪽, 1만4000원.

### 우리 신화로 풀어보는 글쓰기

최성철 지음/책읽는귀족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화로는 그리스 신화가 있다. ‘토르’나 ‘탄지의 제왕’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북유럽 신화도 최근에 많이 알려졌다. 신화는 우리를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문화 창작 활동에 필요한 아이디어 공작소 역할도 한다. 책에는 단군 신화를 비롯해 마고 할미 신화, 주몽 신화, 온조 신화, 연오랑과 세오녀 설화, 처용 설화, 바리데기 신화 등 총 10편의 신화와 설화가 수록됐다. 우리 신화에서 글쓰기 상상력을 펼쳐보자. 424쪽, 2만원.

### 토니 부잔 마인드맵 마스터

토니 부잔 지음/서현정 옮김/미래의 창



생각하는 방법만 바뀌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마인드맵은 인간의 두뇌에서 이뤄지는 사고 과정을 본따 만들어진 생각의 도구다. 신년 계획, 시간 관리, 기획안 작성, 회의 준비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모든 순간에 마인드맵은 당신의 두뇌를 깨워 발상의 전환을 돕는다. 책에는 마인드맵의 탄생 과정부터 작동 원리, 활용 방법, 오용 사례까지 마인드맵 마스터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담겼다. 212쪽, 1만5000원.



###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 바늘꽃

때로 삶이 허탈할 가득할 때 서로 위로하며  
꽃들에게 길을 물어야 하리,  
바람도 길을 물어가듯

/고흥근 작



### 서울시 청년주택

# 사대문 內 가능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불허

##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달성 위해 경제활동 집중 도심형으로 확대 시민 삶 위해 그린벨트는 지켜야

서울시가 공공주택 8만호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부에 청년주택 건립을 허용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풀릴 확률은 낮아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쳐서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을 풀면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사대문 내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는 도심부의 역사적 경관과 지역적 특성 보존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공실 이용 부분과 주거 직주근접 측면에서 기존 역사도심 기본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공공주택 8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청년에게 공급한다.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이 사대문 내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그동안 시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역세권의 범위를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기존 9.61㎢에서 12.64㎢로 약 3㎢ 넓혔다. 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지을 경우 3만호의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역사적 자원으로 보존해 온 한양도성 사대문 안까지 청년주택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풀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자리에서 정부 요구안인 5만호보다

많은 8만호 공급 카드를 꺼내놓으며 그린벨트 방어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달 26일 박 시장은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그린벨트가 바로 그런 것이다”며 “한번 개발되면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지키고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박 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수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과 교수는 “미세먼지 대응 도시숲 그린인프라 토론회”에서 서울을 둘러싼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지면 특성이 바뀌어 열섬효과 및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지에 따른 온도 변화 시험 결과 그린벨트가 풀린 곳에서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풍속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풍속이 저하되면 공기가 정체돼 대기질이 나빠지게 된다.

정 교수는 “현재 관악산과 북한산 인근의 도시림은 야간에 도시로 공기를 공급해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림이 사라지면 유입되는 밤바람이 약화돼 도심 공기가 정체, 야간 대기질이 매우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경기도 황해청, 1억4500만불 외자유치 달성

## 개청 이후 10년만에 최대 성과

### 4차 산업혁명 경제특구로 발돋움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억45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는 2008년 개청 이후 최대 성과다.

과거 외투기업의 유치비율이 2008년~2016년 25%(4건), 2017년 67%(4건)인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황해청은 이러한 양적 성장 외에도 다양한 기획투자 유치활동을 벌였다.

우선 국내 뿌리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가공용 신소재기업인 비택의 외자 유치를 추진해 2000만달러 유치는 물론, 신규 판로 확보를 통해 향후 5년간 5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내의 기술과 해외의 자본을 융합하는 새로운 중소기업형 투자유치모델을 기획해 성공한 것이다.

또 관세청의 해상특송장 구축 지원을



통해 중국 연태시 1위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산둥량왕국제운수 등 2개사와 투자 MOU, 해외 1개사의 투자 의향서를 받는 등 총 1억 350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받아 전자상거래 무역 국제화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미래 강소기업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순수 국내기술의 초소형 전 기차 제조기업 B사를 유치,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의 초석을 마련했다. 향후 강소기업으로 육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틀을 다졌다는 평가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2018년 산업부 중점 투자유치지원사업(상품화)에 선정되는 등 황해청의 지난해 성장은 눈에 띄는 성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공장 등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제특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아파트 분양정보, 전·월세 한눈에 보세요”

서울시는 부동산 전·월세 가격, 아파트 분양 정보 등 시내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서비스를 개편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자도 손쉽게 이용하는 데 방점을 뒀다.

플러그인 설치를 없애고 기기 종류에 따라 서비스 화면의 크기가 바뀌는 ‘반응형 웹’을 도입했다.

지도서비스 조회도 가능하다. 개별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아파트 가격, 개발제한구역, 용도지구 등 주제별로 지도

를 제공한다.

시는 부동산 실거래가부터 전월세, 분양정보까지 서울 전 지역의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윈스톱 서비스를 강화했다.

주택거래정보와 함께 다음 로드뷰를 통해 주변 위치, 인근 공인중개사 정보를 보여주는 등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도 개선했다.

/김현정 기자